

교육청-자치단체 협력·소통 강화

이달 24일 도교육청·지원청·전북도·시군 참여하는 공감연수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육협력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2018 교육청-자치단체 공감연수 워크숍'이 이달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도교육청과 전북도, 교육지원청, 각

시·군·자치단체가 참석, 교육협력 공감대 조성과 미래 지향적 교육협력 강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식 후 '교육청-자치단체 교육협력 방안'을 주제로 박수정 총남대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 오후 2시30분부터는 익산외국어교육센터 설립건, 혁신교육특구 관련

완주교육공공체 운영, 사회복지를 통한 교육복지 활성화 추진 등의 3가지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별 교육협력 현안에 대한 해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 대화의 시간에는 시·군별 2~3가지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 토의가

이뤄지는데, 지역별 교육협력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 공유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여름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들이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워크숍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산대, 베트남 다이남 대학·퓨처대학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군산대학교가 지난 2일 베트남 현지에서 하노이 다이남대학교(Dai Nam University) 및 퓨처대학(Vietnam Future College, VFC)과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대 박병선 총장, 이성수 교무처장,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강영숙 국제교류센터장 및 다이남대학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퓨처대학 총장, 부총장,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대학교와 다이남대학은 군산대학교가 운영 중인 복수 학위제 및 양교 특화 전공분야 교환학생 교류, 인재양성에 유용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

하게 되고, 퓨처대학과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면서 유학생 교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이남대학은 2007년 하노이에 설립된 대학이고 교육, 경제, 인문사회과학, 약학 등 간강관련분야를 포함한 8개 분야에서 8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편 퓨처대학(VFC)은 박린성에 메인 캠퍼스가 있으며 현재 하노이에 새캠퍼스를 구축해서 9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퓨처대학은 현재 한국, 호주, 일본, 중국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군산대학교가 지난 2일 베트남 현지에서 하노이 다이남대학교 및 퓨처대학과 학술·학생교류를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대는 교수도 배운다

매월 2-3회 교수법 특강·강의시연 워크숍 등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은 자라지 않는다. 이는 것은 늘 변하고 있다. 때문에 변화를 배워야 한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잘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들이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워크숍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교수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2~3회 교수법 특강을 개최한다. 또 교수들의 수업을 촬영하여 외부 전문가 분석을 지원하기도 한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에서는 '강의시연 및 동료코칭 워크숍'이 열렸다. 5명의 교수들이 돌아가며 10분 동안 자신만의 강의를 시연하고, 다른 교수들은

참관하며 강의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나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작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참여 교수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강의 시연을 진행한 김중혁(영어영문학과), 이상현 교수(스페인·중남미학과) 등은 "동료 교수들 앞에서 나만의 강의를 공개한다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강의시연을 준비하면서 강의에 대한 안일함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교수법 특강도 인기다.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교수법 중 'PBL 수업', '거꾸로 수업 설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개최했는데, 매 회 30~4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대입개편 '수능상대평가-정시확대' 뻔한 결과에 후폭풍 불가피

시민참여단 1·2안 지지율 격차 4.4%p 불과 논의방식 다단계 하청... 시민에 책임 넘겨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현재 23.8%인 정시 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으로 사실상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

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1안(52.5%)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1안(52.5%)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지한 2안(48.1%)과 지지율 격차가 불과 4.4%포인트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미미한

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시민참여단이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의사결정 방식 등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초 고교 내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조차 다루기가 쉽지 않은 대입제도 개편을 49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2박3일간의 짧은 기간 학습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무리수였다. 목소리가 나온다.

의견수렴 과정도 논란거리다. 공론화 회의가 6월 중 워크숍을 열고 공론화의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요구해 대입개편안 결정의 토대가 되는 대입 시나리오를 줄조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입 시나리오로 4개 안이 도출된 가운데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 3개, 절대평가 전환 1개로, 수능 상대평가로 의견이 수렴되기 유리한 구조로 결정됐다. /뉴시스

원광대 이윤선 교수,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강사 초대회장 선임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이윤선 초빙 교수가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강사 초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단체는 지난달 레이크호텔 교육장에서 전국 노후준비 민간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준비서비스제공자

소집 교육에 이어 이윤선 교수를 임기 1년의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경기대 이화은 연구원과 대구예술대 강성수 외래교수를 각각 부회장과 총무로 선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노후준비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체 전문 인력 양성을 시작해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등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

인 노후준비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강사 41명을 선발해 소집 교육을 하는 등 노후준비 민간강사의 주체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교육청, 휴가철 공직 복무관리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휴가철을 맞아 공직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및 공직비위,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0일까지 복무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근무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공직비위 저해 사례 ▲휴가철을 빙자한 공직비위 사례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 휴가철 업무공백 및 민원방

치, 무단 이석, 휴가비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 비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 책임 하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기록 관리, 비상연락망 등 유사시 연락 및 대응체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이 책임지고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